

Special & Report

기획특집

크리에티브 쿠바

정승구

“쿠바인은 행복하다!” 쿠바를 다녀 온 모든 이들이 하는 말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쿠바인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쿠바인만이 가진 특유의 ‘창의성’에서 찾아봤다.

토론 공동체

아바나의 밀집된 골목골목에는 독특한 이웃공동체문화가 있다. 쿠바인은 차나 술을 따라놓고 몇 시간씩 대화를 즐긴다. 도심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카페에서, 건물 발코니에서 나는 많은 쿠바인과 함께 오후를 보내며 무궁무진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번 토론이 시작되면 친구의 친구, 사돈의 팔촌, 이웃의 이웃까지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참여한다. 이웃공동체가 만들어낸 ‘지식 파급’은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쿠바의 ‘아고라’라고 할 수 있다.

예술, 문화, 야구, 역사, 과학, 종교와 같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지적 과시를 위한 먹물들의 논쟁이나, 남을 설득하고 움직이려는 정치적인 설전이 아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교환에 가깝다. 선전과 선동에 신물이 나 있는 쿠바인은 토론의 유익함을 알고 있다.

통제가 심한 경찰국가라서 쿠바인은 정부나 제도보다는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 언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외신을 접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확인해주는 사실만 믿는다. 그래서 쿠바인에게 ‘진실’은 사회적인 인맥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동의한 것에 가깝다. 쿠바에서 뉴스는 친하고 신뢰하는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져나간다. 오후나 저녁의 토론은 쿠바인의 SNS인 셈이었다.

옆집의 다자 토론은, 누군가가 틀어놓은 데세메르 부에노(Descemer Bueno) 노래의 선율에 맞춰 약강5보격의 연극 대사처럼 경쾌하게 들려왔다. 바다를 바라보는 건물에서는 어김없이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골목 어디에서는 누군가가 찌그러진 냅비를 쳐서 펴고 있었고, 잇을 만하면 남편에게 고함을 질러대는 여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왔다.

아바나는 그렇게 리듬을 잃지 않는 도시였고, 쿠바는 언제나 음악이 멈추지 않는 나라였다.

쿠바의 공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쿠바 음악은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이 연주하는 쿠바 재즈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쿠바의 젊은이는 아무도 이런 음악을 듣지 않았고, 시가도 피우지 않았다. 간혹 살사를 즐겨 추는 친구는 몇몇 봤지만, 관광 책자에 나오는 전형적인 쿠바인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 누구도 마르크스는 고사하고 공산주의에도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 중 ‘공산주의’라는 형용사는 ‘구리다’ 또는 ‘안 좋다’로 통한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멋지다’ 또는 ‘좋다’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머물던 민박집 아들 페페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쿠바 음악사에 박식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느 쿠바 젊은이처럼 쿠바 힙합과 레게톤(Reggaetón)을 즐겨 들었다.

페페는 외국인이 찾는 관광클럽의 음악이 아닌 전통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나를 룸바(Rumba) 공연에 데려갔다. 룸바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파란 바람」 (출처: 필자 제공)

서정적이었다. 템포의 흐름이 시간을 엇가락처럼 휘어놓았다. 많은 민속 문화가 그렇듯이 룸바 역시 애환과 풍자로 가득했고, 음악과 춤으로 보여주는 서사는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할 정도로 호소력이 강했다.

19세기 서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노예를 중심으로 퍼진 이 독특한 음악과 춤의 기원은 요루바(Yoruba) 전통의 산테리아(Santería) 종교 행사와 맞물려서 제사와 의례에 가까운 형식을 띠고 있었다. 룸바의 원래 뜻은 ‘같이 모여서 춤추자’라고

한다. 타악기 위주의 룸바는 브라질의 삼바와 느낌이 비슷했지만, 진화 과정을 들여보니 미국 남부의 재즈와 더 유사했다. 비트가 강렬한 룸바는 오늘날 쿠바 음악의 밑거름이 됐다고 페페가 설명해주었다.

“쿠바의 음악은 ‘쿠바의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쿠바의 공기? 그 표현 참 멋지다. 쿠바는 공기가 아주 좋은 나라구나. 그런데 쿠바의 음악과 춤의 원형을 딱 하나만 집으라면 뭐가 있을까?”

“민속음악과 오리사(Orisha) 춤이죠.” 오리사는 요루바 종교의 신 중 하나다.

룸바처럼 민속음악 역시 오늘날 쿠바 음악과 일맥상통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즉흥이다. 큰 테두리의 구성 안에서, 음악인과 무용수는 재즈연주자처럼 순간순간의 즉흥적인 연주와 안무를 통해 독창적인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그들의 창의력은 마치 시원하게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팔팔 쏟아져 나왔다.

“그냥 즐겨요. 그 어떤 걱정이나 생각 없이 음악과 흐르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오리사 춤을 환상적으로 추는 무용수 아말리아가 내게 말했다.

“즉흥연주에 맞춰 추는 춤은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칭찬했다.

“완벽? 완벽 같은 것은 추구하지 않아요.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평소에 연습한 대로 노래와 이야기에 맞게 순간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려고 집중할 뿐이에요.”

예술의 연마는 완벽을 위한 것이 아닌 완벽을 벗어나기 위한 훈련이라는 말이었다. 훌륭한 배우는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독창적인 예술가들은 독창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린이처럼 환하게 웃는 아말리아를 보며 쿠바의 ‘맑은 공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파케테 세마날

쿠바의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바나인은 파케테 세마날(paquete semanal)을 활용한다. 우리말로 하면 ‘주간 묶음’ 또는 ‘주간 패키지’ 정도 일 것이다. 아바나에는 대용량 외장하드에 지난 일주일간의 새로운 콘텐츠를 다운받아주는 ‘야매’ 다운로드들이 있다. 해외 언론, 책, 스포츠,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 고객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소액의 월 회비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아바나인이 가장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겸 언론 매체이다. 하지만 현지인의 말에 의하면, 쿠바 정보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암암리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쿠바는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다. 미국에서 「아바타」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쿠바에서는 공중파 텔레비전으로 방영했다. 당연히 해적판이었다. 그래서 쿠바의 유명한 음악인과 문인은 멕시코 또는 스페인에서 계약을 맺고 작품을 발표한다. 그러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쿠바는 천국에 가깝다. 쿠바에서는 셰익스피

어와 세르반테스에서부터 헤밍웨이와 가르시아 마르케스까지 모두 다 길거리 책방에서 종이 값 정도만 받고 헐값에 판다.

그렇다고 쿠바에서 모든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세기 이상 일당독재를 유지한 나라는 검열이 심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문맹 퇴치를 이룬 나라의 인민은 읽고 쓰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받으며 살았다. 나의 이런 지적에 많은 쿠바인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쿠바에서는 예술적 자유에 제한이 있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도 검열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팔릴지 고민해야 되는 작가의 무의식적인 ‘자체 검열’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식 파급 효과

즉흥적인 예술과 반대로 아주 정교하고 계획된 예술이 있다. 아마 문학에서는 시와 희곡이 그럴 것이다.

예전에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연기자 출신의 작가가 있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작가의 이야기 소재와 대사 기법을 모방하기로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아니 문명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다. 그 사람은 셰익스피어이다. 대부분의 작품 줄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약강5보격 기법조차도 크리스토퍼 말로(Christopher Marlowe)가 먼저 사용한 스타일이었다. 셰익스피어가 표절꾼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의미 있는 점은 그가 살던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표절할 만한 콘텐츠가 많았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엄청난 경제적 부흥으로 문맹률이 급격히 줄고 있어 새로운 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출판되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책방에서 새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문화가 꽃피던 시기였고, 예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연극을 하는 극단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즉, 그 시대의 런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흐르는 ‘지식 파급’의 도시였다.

그런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현의 자



「신고전 아바나」 (출처: 필자 제공)

유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예술가들에게 비판을 허용했다. 그래서 영국 극단은 지배층과 정부에 대해 신랄하면서도 재치가 넘치는 풍자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는 16세기 영국에 살고 있지 않다. 창의적인 혁신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이 권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크리에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같은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창의력이란 결국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양한 자원에서 교합을 찾아 합치고 연결시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공기는 맑아야 한다. 창의력은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소모되는 제품이 아니다. 혁신적인 개념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수록 진화하고 생산적으로 증폭된다. 정보와 지식을 마음껏 자유롭게 교환하는 환경은 아이디어의 상승과 축적으로, 또 창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진다. 지적재산권을 생산적으로 공유하는 열린 사회야말로 창의력이 곳곳에서 수돗물처럼 팔팔 흐르고 넘치는 창의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바의 반정부 블로거 요아니 산체스(Yoani Sánchez)는 아바나에서 버젓하게 가정을 꾸리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다. 많은 이들의 근거 없는 편견과 달리, 일당독재 체제인 쿠바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레슬베르

“일자 드라이버가 없으면 칼 하나로도 충분해요. 망치가 없으면 돌로도 돼요. 한 달이면 그 어떤 고물차도 레이스카로 바꿔놓는다니까요. 한 달을 못 기다린다고요? 그럼 3주에도 가능해요. 가솔린 값이 부담되면 디젤로, 디젤도 싫으면 물로 움직이는 엔진을 만들어줄게요.”

엔진오일을 갈아주는 정비사의 허풍은 음악적이었다. 쿠바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메카니코(mecánico)가 되려면 창의력과 손재주는 기본이고 ‘말



「Good Old Days」 (출처: 필자 제공)

발'이 세야 한다. 쿠바의 메카니코는 단순한 수리공이나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아니 마술사에 가깝다.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른바 '양크 탱크'(Yank tank)가 쿠바의 거리를 아무 문제없이 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쿠바의 메카니코를 보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열린 사고를 통해서 산출되는 혁신적인 결과물이다. '1+2=?'라는 질문이 아니라 '? +? =3'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변 여건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작업한다. 소련산 라다(Lada)의 피스톤을 쉐비(Chevy)에 부착하고, 가스히터의 버너를 활용해 우랄(Ural) 오토바이의 카브레이터로 변형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잔디 깎는 기계의 엔진을 활용해 스쿠터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자 쿠바의 수출입은 5분의 1로 줄고, GDP는 3분의 2로 줄었다. 소련으로부터 원유 공급이 중단됐고, 수도 아바나에서도

전기와 물이 종종 끊겼다. 경제 위기가 아닌 대재앙이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인민들에게 ‘특별 시기’를 선포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쿠바와 북한의 멸망을 확신하며 기다렸다.

레솔베르(resolver)는 쿠바가 특별 시기에 외친 구호이자 삶의 방식이다. 직역하면 ‘해결’이라는 뜻이지만, 특별 시기를 견뎌낸 쿠바인에게 레솔베르는 다양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얼핏 들으면 같은 시기에 북한이 외친 ‘자력갱생’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둘은 확연히 다르다. 자력에는 웬지 미련한 고집과 열등감에서 나온 자존심이 묻어 있지만, 레솔베르는 훨씬 실용적이면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다. 레솔베르에는 쿠바가 특별 시기를 이겨낸 저력과 자부심이 들어 있다. 쿠바인은 카스트로 형제의 현명하고 유연한 지도력, 따뜻한 공동체 의식,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원으로 고난의 시기를 레솔베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특별 시기

“그때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어. 돈 몇 푼 때문에 치즈 대신 콘돔을 잘라 녹여서 뿌린 피자를 팔기도 했단니까. 무슨 저주받은 시대 같았어. 쓰레기는 곳곳에 쌓여 있었고, 뒷골목은 썩는 냄새로 진동해서 거대한 변기 같았지. 그래도 우리 식구는 좀 편안한 동네에 거주했지만, 상하수도 가 부실한 동네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나눠 써야 했다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가 득실거렸고. 악몽이었지.”

민박집 주인 마그다가 회상하는 암울한 특별 시기의 기억을 듣고 있던 내 친구 하비에르는 유머를 섞어 이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특별 시기 덕분에 우리는 건강해졌어. 다이어트가 필요 없게 됐고, 당뇨 같은 병도 사라졌지. 그보다 중요한 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던 모든 것이 끊겨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다는 거지.”

쿠바인은 굶주림의 상처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힘든지 특별 시기를 떠올리면 하나같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비에르 역시 경쾌하게 얘기했지만 잊고 있던 고통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눈시울을 닦으며 담배 연기를 길



「Old and New」 (출처: 필자 제공)

게 뽑어냈다.

하비에르의 말대로 쿠바인은 창의력을 발휘했다. 살충제 대신에 나비를 이용하고, 마취제가 모자란 병원에서는 전통 대체 의술과 중국 침술을 활용해 수술을 했다. 또 특별 시기를 계기로 생명공학 등에 과감한 투자

를 해서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소위 ‘짜퉁 약’을 수출해 외화벌이에 기여했다. 심지어 쿠바를 탈출하는 보트피플조차 창의력을 발휘해 007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륙양용 카보트를 직접 만들어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절에 쿠바가 어떻게 붕괴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여긴다. 나 역시 그랬다. 그 질문의 답을 하비에르의 노모인 클라라가 가르쳐줬다.

“그 시절에는 휘발유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식량을 배급소로 날랐다네. 몇 시간씩 그 땀벌에서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보급품을 가득 싣고 자전거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청년들이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웠지. 실신할 때까지 식량을 나르는 그 청년들에게서 우리는 성인(聖人)의 모습을 봤어. 그 성인들 덕에 우리도 기운을 잃지 않았을 거야. 그거 아냐?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지저분했지만 아이들 교복만은 깨끗했다네. 누구나 아이들에게는 품위와 자부심을 물려주고 싶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소련이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즐거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에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몫이라는 걸 말이야.”

“고통과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란 말일세. 그 자유야말로 우리가 혁명을 지키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쿠바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혁명’이라는 단어는 외세가 심은 이념이 아닌, 인민이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일궈낸 사회이자 문화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특별 시기를 이겨낸 쿠바의 저력은 바로 쿠바 인민의 자유였던 것이다.

혁명의 유산

흔히 쿠바혁명은 보건 복지와 교육 그리고 스포츠를 향상시켰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쿠바인은 이 셋을 얻는 대가로 삼시 세끼가 부실해졌

다는 농담을 자조적으로 덧붙인다.

쿠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포츠 강국이다. 야구, 배구와 권투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를 배출해낸다. 역대 팬암게임(Pan American Games)에서 각국이 획득한 메달 수를 집계해보면 미국 다음이 쿠바이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베네수엘라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쿠바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실로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다.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거둔 성적 역시 놀랍다. 특별 시기이던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쿠바는 메달 순위 10위권에 꾸준히 진입했다.

혁명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스포츠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인민이 스포츠를 부담 없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개개인의 재능과 열정만 있다면 쿠바에서는 누구나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 체육인은 혁명의 자녀다”라는 피델 카스트로의 말처럼 스포츠는 쿠바혁명의 선전도구이기도 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이후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를 통해 쿠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이런 의도만 보면 구소련과 동구권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스포츠 엘리트 양성 정책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쿠바의 정책은 철학 자체가 달랐다.

국가주도형 스포츠 정책은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와 달리 쿠바의 정책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열정에 의존한다. 이는 단순히 쿠바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원으로 혁명을 일으켜본 피델 카스트로는 강제성과 자발성에서 나오는 힘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발적인 열정’이라는 말이 화성에서나 가능한 공상으로 들린다면 다음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최고의 인력을 모아 엔카르타(Encarta)라는 디지털 백과사전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백과사전 회사를 인수하고 적합한 수익 모델을 설계했다.

그런데 2001년에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백과사전이 나타났다. 거대한 자본도 조직도 없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는 철학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동의하고 재미와 의미를 느낀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식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사이트, 이 사이트가 바로 위키피디아(Wikipedia)이다.

2009년 유료 서비스를 하던 엔카르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검색 페이지뷰에서 위키피디아가 97%에 달하는 데 비해 엔카르타는 1.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위키피디아는 세계 5대 사이트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한국어판 위키피디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내용이 턱없이 허접하고 부실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발적인 열정으로 성취하는 모델은 사회주의 모델도 자본주의 모델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노예가 아니다. 누구나 꿈과 열정을 갖고 있고, 그런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쿠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환경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쿠바에서는 어린이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몇몇 분야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지도 않는다. 가치와 재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쿠바의 교육은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건설적인 협력을, 타인을 다스리는 방법보다는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쿠바에서는 시장과 기업에서 쓸모 있는 ‘수동적인 인재’가 아닌,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인성’ 양성에 중점을 둔다.

아침마다 학교에서 체 게바라처럼 되겠다고 맹세한 아이는 자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에볼라 퇴치를 위해 아프리카로 주저 없이 떠난다. 자신의 사익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분명 고귀한 존재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와,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실익을 챙기는 사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유아를 폭행하는 교사나 보험금을 위해 환자 몰래 담낭을 제거하는 의사가 존재하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왜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는 기쁨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불편한 쿠바는 행복을 누리는가? 그 답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승구 — 영화감독, 작가